

광주FC, 전북현대 첫 승 '제물'...충격의 5연패

원정서 1-2 패...후반 추가시간 송민규에 극장골 허용 K리그2...전남, 안산 상대 승점 1점 더하며 3위 올라서

광주FC가 전북현대의 시즌 첫승 제물이 되면서 5연패 늪에 빠졌다.

광주가 지난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K리그2 2024 7라운드 경기에서 1-2패를 기록했다. 3라운드 포항전부터 시작된 광주의 패배가 '5연패'까지 이어졌다.

올 시즌 6경기에서 승 없이 3무득 기록하고 있던 전북은 '광주전 안방 강세'를 이어가면서 무승 고리를 끊었다.

전반 15분 이희균이 슈팅을 날리면서 광주의 공세를 알렸다. 공은 골키퍼 정민기에게 막혔지만 광주의 유효슈팅이 기록됐다.

하지만 2분 뒤 전북의 골이 만들어졌다.

프리킥 상황에서 이영재가 띄운 공을 골키퍼 이준이 쳐냈지만, 이수빈에 이어 이재익에게 공이 연결됐다. 이재익의 오른발을 떠난 공이 광주 골망을 흔들면서 0-1이 됐다.

선제골을 내준 광주가 승부를 돌리기 위해 공세에 나섰다. 전반 37분 광주의 '루키' 문민서가 페널티지역에서 상대 수비를 뚫고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공이 골대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아쉬움을 삼킨 광주. 전반 43분 이희균의 오른발 슈팅도 높

게 됐다.

0-1로 뒤진 채 시작된 후반. 이정호 감독이 '신예' 조성권과 문민서를 빼고 박한빈과 정지용으로 경향을 더했다.

후반 투입된 박한빈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후반 분위기를 바꿨다. 박한빈이 후반 25분에는 오른발 중거리 슈팅까지 날려봤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광주에 골대 불운도 따랐다.

후반 28분 최경록이 오른발로 떠난 공이 골대 오른쪽 구석을 맞고 바깥쪽으로 떨어졌다.

후반 31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공을 넘겨받은 정호연이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렸지만 가브리엘의 머리에 닿지 못했다. 이어진 공격에서는 이민기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지나쳤다.

거세게 전북을 몰아붙인 광주가 후반 37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정호연이 왼발로 올린 크로스가 골키퍼를 지나 골대 왼쪽에 있던 이건희 앞으로 향했다. 가슴으로 공을 떨군 이건희가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가져왔다.

5경기 만에 승점을 기대했던 순간, 광주가 통탄의 실절을 기록했다.



광주FC의 이건희(20번)가 13일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37분 동점골을 넣은 뒤 정지용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후반 추가시간 골키퍼 이준이 박스 안에서 패스를 하려다가 공을 뺏겼고, 송민규가 오른발로 광주의 골대를 갈랐다.

경기 종료 직전 광주에게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

가 찾아왔다.

가브리엘이 오른쪽에서 올려 준 공이 이건희에게 연결됐다. 이건희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왼쪽에 있던 정호연 앞으로 흘렀다. 정호연이 미끄러지면서

마지막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대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광주가 망을 쳤다.

이어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광주는 5연패를 기록했다. 페트레스쿠 감독과 결별하고 박원재 감독대행 체제로 전환한 전북은 시즌 7번째 경기에서 '첫승'을 신고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 다했다고 생각한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 후반에 따라가는 모습은 좋았다"며 전북전을 평가한 광주 이정호 감독은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나다. 내가 더 노력하고 선수들이 더 신나게 경기장에서 할 수 있게 지금보다 더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 밖에 없었을 것 같다. 다행히 (다음 경기까지) 시간이 있다.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방에서 안산그리너스를 상대한 전남대래 끈는 승점 1점을 더하면서 3위로 올라섰다.

전남은 14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7라운드 안산과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10분 만에 양세영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35분 터진 박태용의 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5년 7개월 만에 전가된 수원삼성과의 맞대결에서 1-5로 지며, 3연승에서 멈췄던 전남은 대패의 충격을 지우고 승점을 더했다.

전남은 이날 무승부로 승점10(3승 1무 2패)을 채우면서 부산아이파크(3승 4패·승점 9)를 따돌리고 3위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가자, 파리 올림픽”...황선홍호 10회 연속 진출 도전

U-23 아시안컵 오늘 개막 해외파 승선 불발 악재 속 중국·일본·UAE와 한 조

한국 남자축구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대업에 도전한다.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이 15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하는 호주-요르단 경기를 시작으로 19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U-23 아시안컵은 2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인데, 올해처럼 올림픽의 해에 열리는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한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2024 파리 올림픽 본선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아시아에는 올림픽 본선 진출권 3.5장이 배정됐다.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한 두 팀과 3-4위 결정전에서 승리한 한 팀이 우선 3장의 티켓을 가져간다. 4위 팀은 2023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4위인 기니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야 파리로 갈 수 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대표팀의 1차 목표는 올림픽 본선 진출이다.

1988년 서울 대회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개근한 한국은 이번 대회 본선에도 오르면 10회 연속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 신기록을 쓴다.

앞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본선에 진출했을 때 이룬 '8회 연속' 진출부터 세계 첫 기록이었다.

그런데 황선홍호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역대 가장 어려운 올림픽 최종 예선이 될 거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각 조 2위까지 8강에 진출하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UAE)와 B조로 묶였다.

한국 축구는 최근 들어 일본에 약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2022 U-23 아시안컵 8강과 2023 U-17



1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트랜스미터스타디움 훈련장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 겸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U-23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아시안컵 결승 맞대결에서 거푸 0-3으로 패하는 등 연령별 대회에서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여기에 거칠게 나오는 경향의 중국 역시 결코 쉬운 상대다. 황선홍호가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것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17일 오전 0시 30분 UAE를 상대로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 오후 10시 중국, 22일 오후 10시 일본과 차례로 대결한다.

황선홍호가 최근 2연승을 포함해 상대 전적 2승 1패를 기록 중인 UAE와 첫 경기를 치르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팀 내부 사정도 좋지 않다. 전력의 핵심인 해외파 차출이 대부분 불발됐다.

황 감독은 김민우(뒤셀도르프), 양현준(셀틱), 정상빈(미네소타), 김지수(브렌트퍼드), 배준호(스토크시티)를 호출했는데 이중 양현준, 김지수, 배준호의 차출이 불발됐다.

특히 공격 전개의 핵심으로 활약해온 배준호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작지 않은 타격이다.

'부상'도 황선홍호를 괴롭힌다. 주축 미드필더 백상훈이 무릎 부상으로 치료받다가 8일야하 한국을 떠나 대표팀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순천시청 양궁 선수현, 파리올림픽 출전 확정

임시현·전훈영과 티켓 획득

양궁 선수현(순천시청·사진)이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예전에서 열린 2024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에서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양궁 선수 남녀 각 3명이 확정됐다.

최종 엔트리는 2024 국가대표 남녀 각 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청주에서 진행된 1차 평가전(8점 만점)과 이번 2차 평가전(8점 만점)의 배점을 합산해 결정됐다.

남수현은 1·2차 평가전에서 각각 배점 5점씩을 받아 합계10점으로 여자 리커브 3위에 오르며 파리행 티켓을 획득했다. 여자 1위는 배점 합계 17.6점의 '함겨우 아시아게임 3관왕' 임시현(한국체대), 2위는 배점합계 12점의 전훈영(인천시청)이다.

앞서 8명의 국가대표는 지난 3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을 통해 정해졌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남수현을 비롯해 최미선(광주은행), 오예진(광주여대), 이은경(순천시청)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상위 8명의 선수 중 유일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트렸던 최미선은 아쉽게 파리로 향하게 될 최종 3인에는 선발되지 못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은 1988 서울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 도쿄 올림픽까지 단체전 금메달을 놓치지 않으며 대회 9연패의 기록을 써냈다.

남수현은 임시현, 전훈영과 함께 파리 올림픽에 출전해 올림픽 여자 단체전 10연패라는 대기록에 도전한다.

2005년생으로 올해 순천여고를 졸업한 남수현은 지난해 대통령기전국대회 여자 단체전에 이어 전국체전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바 있다.

남자 양궁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 김재덕(예천군청)이 파리 올림픽 대표로 선발됐다.

한편,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경기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파리 앙발리드 경기장에서 열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민재 또 벤치행...뮌헨, 뮌헨에 2-0 완승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벤치를 지킨 가운데, 팀은 무실점으로 승리했다.

뮌헨은 13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분데스리가 29라운드 홈 경기에서 FC뮌헨을 2-0으로 꺾었다.

김민재는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뮌헨에 합류해 줄곧 주전 센터백 자리를 지켰던 김민재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팀에 합류한 에릭 다이어에게 밀려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다.

김민재가 리그 경기에 결장한 건 이번이 3번째다. 뮌헨 공식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부상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표팀 차출 기간을 제외하고 시즌 5번째 결장이다.

전반을 0-0으로 끝낸 뮌헨은 후반 20분 하피엘 게헤이루가 오른쪽 페널티 라인 외곽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트로 선제포를 터뜨렸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토마스 뮐러가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추가 골을 기록했다.

뮌헨(승점 63)은 1위 레버쿠젠(승점 76)에 이은 2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쿠팡맨더4
2관	파묘, 댓글부대
3관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
4관	쿠팡맨더4, 파묘
5관	댓글부대
6관	쿠팡맨더4
9관	오멘: 저주의 시작
7관	새너ვე를 남은 인생 10년, 댓글부대, 골드핑거, 오멘: 저주의 시작
8관	새너ვე를 남은 인생 10년, 어게인 1997, 1980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4월

매주 토요일 17:00

광주공연마루

광주상설공연

2024년 광주상설공연(4월)

일시 : 2024-04-06(토) ~ 2024-04-28(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즐거움

문화산책